奎章閣 所藏 口訣資料 楞嚴經 2種에 대하여

박 진 호*

본고에서는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능엄경 2종에 대하여 소개하고 거기에 기입된 구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 소개하려는 자료 중 하나는 가람문고에 소장되어 있고 하나는 一簑文庫에 소장되어 있다. 앞으로 전자는 가람본, 후자는 일사본이라 부르기로 하겠다.

1. 가람본의 서지사항

가람본은 10권이 한 책으로 묶여 있으나 권1-5와 권6-10은 사실 다른 종류의 책이다. 권1-5는 목판본으로서 책의 크기는 세로 26cm, 가로 16cm이며, 四周雙邊이고 半郭의 크기는 세로 18-19cm, 가로 13cm이다. 無界에 13행 22자이고, 版心은 上黑魚尾에 細黑口이며 版心題는 '楞'이다. 이 책의 張次는 1, 2권이 이어서 매겨져 있고 또 3, 4권이 이어서 매겨져 있다. 즉, 권1이 25장에서 끝나는데 권2는 26장에서 시작하여 54장에서 끝나며, 권3이 27장에서 끝나는데 권4는 28장에서 시작하여 57장에서 끝난다. 권5는 20장으로 되어 있다. 권1의 卷頭에는 '首楞嚴經要解序(建炎改元, 及南 撰)'가 있다.

권6-10은 목판본으로서 책의 크기는 위와 같고 上下單邊 左右雙邊이며 半郭의 크기는 세로 19-19.5cm, 가로 13cm이다. 無界에 13행 22자이고, 版心은 上黑魚尾인데 어미가 없는 張도 많다. 版心題는 '楞'이다. 권6은 張次

---

* 서울대

본고에서 소개하는 자료의 발굴에서부터 본고의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아낌없는 지도를 베풀어 주신 정재영 선생님께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한다.

가 21장에서 시작하여 46장에서 끝나며, 권7과 권8은 장차가 이어져 있어서 권7이 25장에서 끝나고 권8이 26장에서 시작하여 58장에서 끝난다. 반면에 권9와 권10은 장차가 따로 매겨져 있다. 권9는 28장, 권10은 23장으로 되어 있다. 권10의 끝에는 行儀의 跋文(建炎 己酉)과 '… 時乙未七月 日 謹誌 / 財主鹿鳴鄕前長 李勝光 / 同願道人等 克圓 了非'라는 刊記가 붙어 있다.

권1-5는 남권희 교수 소장 능엄경, 즉 학계에 대구본이라고 알려져 있는 책과 같은 계통의 책이다. 版式과 字體가 완전히 동일할 뿐 아니라 일부 誤字에서도 두 책이 일치하고 있다.

(1) ㄱ. 而責 躬請敎 求詣眞際 <대구, 가람1:17b8>
ㄴ. 而責 躬請敎 求指眞際 <안동1:11a14>, <일사1:17b8>, <송성문1:31a8>, <간경1:76b8>

(2) ㄱ. 故曰元我覺明覺所緣眚也 <안동2:13b13>, <대구, 가람, 일사2:46a12>
ㄴ. 故曰元我覺明見所緣眚也 <기림, 송성문2:38a1>, <간경2:90a4>

(3) ㄱ. 所見不祥 同見業中瘴惡所起 <대구, 가람2:47a2>
ㄴ. 所現不祥 同見業中瘴惡所起 <안동2:14a10>, <일사2:47a2>, <기림, 송성문2:39a1>, <간경2:92b3>

(4) ㄱ. 比迷性成識妄隨流轉之狀也 <안동:해당 부분 낙장>, <대구, 가람2:53b5>
ㄴ. 此迷性成識妄隨流轉之狀也 <일사2:53b5>, <기림, 송성문2:51a3>, <간경2:120b6>

(5) ㄱ. 見十空方 如觀手中所持葉物 <대구, 가람3:25a6>
ㄴ. 見十方空 如觀手中所持葉物 <안동3:16b2>, <일사3:25a6>, <기림, 송성문3:46a4>, <간경3:108a1>

(6) ㄱ. 汝負我命我還債汝 <안동4:5a2>, <대구, 가람, 일사4:34a11>
ㄴ. 汝負我命我還汝債 <기림, 송성문4:12b5>, <간경4:30b9>

(7) ㄱ. 以是卽俱世出世 <안동4:8a2>, <대구, 가람, 일사4:39a9>
ㄴ. 以是俱卽世出世 <기림, 송성문4:21b2>, <간경4:51b1>

(8) ㄱ. 二敍迷 <안동:해당 부분 낙장>, <대구, 가람4:55b4>
ㄴ. 一敍迷 <일사4:55a4>, <기림, 송성문4:51b2>, <간경4:124a1>

위의 예 모두 대구본과 가람본이 같은 誤字를 가지고 있는 경우인데, 후대의 판본에서는 이 誤字가 수정되어 있다. 대구본과 가람본 둘만이 갖는 공통점은 이 밖에도 많이 있다. '世世'에서 둘째 글자의 字體가 첫째 글자와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이라든지(5:10a1, 5:11a4), '告'字의 첫 획 삐침이 없는 것(4:57a12), 그리고 때때로 나타나는 글자 사이의 비정상적으로 넓은 간격이 두 책에서 일치하고 있다. 또한 두 책은 모두 1행 22자가 원칙인데 드물게 1행 21자가 같은 곳에서 일치되어 나타난다(5:11b7,11). 또한 대구본과 가람본은 권5에서 석가의 제자 '周利槃特迦', '畢陵伽婆蹉'와 '孫陀羅難陀'의 이름이 본문에서 제시된 뒤 解에서 온 이름이 다시 반복되는 반면에(5:10b13, 5:11b8, 5:13b3), 후대의 판본들에서는 解에서 이름이 '周利特迦', '畢陵蹉', '孫陀難陀'로 줄여져서 표기된다. 나중에 다시 언급되겠지만 해인사판은 대구본 계통의 책을 저본으로 하여 만들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지적한 대구본과 가람본의 공통점을 결여하고 있다. 이것은 대구본과 가람본의 밀접한 관계를 잘 보여준다.

그러나, 대구본과 가람본 권1-5가 같은 책판에서 인출된 것은 아니다. 글자의 획이 대체로는 일치하나 미세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고, 변란이 떨어져나간 부분도 일치하지 않으며, 아예 다른 글자로 바뀌어 있는 곳도 있기 때문이다.

(9) ㄱ. 則心緣意處終無實矣 <안동3:5b12>, <대구, 일사3:8b6>
ㄴ. 則心緣法處終無實矣 <가람3:8b6>
(10) ㄱ. 聞性未嘗有無 <대구4:56b4>
ㄴ. 聞性朱嘗有無 <가람4:56b4>

(9)는 안동본과 대구본의 것이 誤字인데 가람본 및 그 이후의 판본에서 바로잡은 것이고, (10)은 가람본의 것이 誤字이다. 이상의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가람본 권1-5는 대구본 계통의 책을 版下로 한 覆刻本이라고 할 수 있다.

『動産文化財指定報告書('87指定篇)』에는 보물 제939호로 지정된 능엄경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 책이 가람본 권1-5와 같은 책판에서 인출된 책인 듯

하다. 보물 제939호로 지정된 능엄경은 권4-7이 한 책으로 되어 있고 권8-10이 또 한 책으로 되어 있다. 『動産文化財指定報告書('87指定篇)』에 권4 1a면의 사진이 실려 있는데 가람본의 해당면과 비교해 보면, 변란이 떨어져나간 부분이 일치하고 획이 마모된 부분도 일치하여 같은 책판에서 인출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가람본도 초쇄본은 아닌 듯하지만 보물 제939호로 지정된 책보다는 먼저 인출된 듯하다. 보물 제939호로 지정된 능엄경의 권10 끝에는 '洪武五年壬子(1372:恭愍王21년) … 芻卽了跋 / 功德主大將軍全[金]瑚 / 靈岩郡夫人崔氏 / 同願貞順翁主李氏 / 安城靑龍寺刊板'이라는 刊記가 붙어 있다고 한다. 이로써 가람본 권1-5의 책판이 이루어진 것이 1372년경임을 알 수 있고, 가람본 권1-5는 14세기말 내지 15세기초에 인출된 책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가람본 권6-10은 권말의 刊記에서 알 수 있듯이 1235년 해인사에서 彫造한 책판에서 인출된 책이다. 이 책판은 현재에도 해인사에 남아있다.[1] 인출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다.

2. 일사본의 서지사항

일사본은 권1에서 권5까지 5권이 한 책으로 되어 있으며 책의 크기는 세로 27cm, 가로 16cm이다. 上下單邊 左右雙邊이며 半郭의 크기는 세로 19-19.5cm, 가로 13cm이다. 無界에 13행 22자이고, 版心은 上黑魚尾인데 어미가 없는 張도 많다. 版心題는 '楞'이다. 권1의 제1장이 補寫되었다. 이 역시 1235년 해인사에서 彫造한 책판에서 인출된 책이다. 印面의 상태로 볼 때 가람본 권6-10보다는 후대에 인출된 듯하다.

이 해인사판은 대구본 계통의 책을 저본으로 하여 만들어진 것 같다. 우선 책의 체재가 완전히 동일하다. 13행 22자라는 공통점은 물론이고, 본문이 끝나고 解로 넘어갈 때 행을 바꾸거나 바꾸지 않거나 하는 것도 완전히 동일하

1) 이 책판에 대해서는 박상국(1983, 1987)을 참조할 것. 앞으로 이 책판을 해인사판이라 부르기로 하겠다.

다. 게다가 위의 (2), (6), (7), (9)는 대구본과 해인사판에서 동일한 誤字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1), (3), (4), (5), (8)과 같은 수정도 가해졌다.

3. 가람본 권1-5의 구결

가람본 권1-5는 14세기말 내지 15세기초의 책이지만 거기에 기입된 구결은 그보다 훨씬 이전의 언어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듯하다. 구결자의 사용 양상을 보면, '어'는 'ㅓ'로, '며'는 'ㆁ'로, '샤'는 'ㅅ'로 표기되어 14세기말의 경향과 일치하는 것 같지만, '리'가 항상 'ㅋ'로만 표기되고 '라'가 'ㆍ' 외에 'ㅅ'로도 표기되는 것은 이전 시기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15세기의 2인칭 의문형 'ᄒᆞᄂᆞᆫ다'가 'ㅅᄒᆡᄀᆞᄆᆞ'로도 표기되지만 'ㅅᄒᆡᄀᆞ底'(4:35b13)도 눈에 띈다. 'ᄒᆞ란디'는 주로 'ㅅᄉᆞ(ㄱ)大'로 표기되지만 'ㅅᄉᆞ(ㄱ)ㅁ'도 가끔 보인다.

이 책에 기입된 구결의 의고성은 구결토들에서 더 잘 나타난다. 'ㅁㄴㅅㄱ'(4:45a3), 'ㅁㄴㅎㄱ'(4:50b8), 'ㅁ斤'(1:19b11, 4:56b13, 5:10b9)이 눈에 띄고 'ㅅㅗㅅㅓㅣ', 'ㅅᄉᆞᄒᆞ', 'ㅅㄱㅗㅏ', 'ㅅㄴ上ㅏ'는 수없이 많이 나온다. 특기할 것은 'ㅅㄱ上ㅏ'(4:49b13, 4:51b6, 4:56b12, 5:8a7)도 나타난다는 것이다. 처격조사는 주로 'ᄋᆞ'로 표기되지만 '이' 모음 뒤에서 'ㅗ'(5:13a10, 5:17a8, 5:19b8)로 표기되기도 하였다. 여격조사로 'ㅋㅏ'(1:17b10, 3:15b4, 5:3b11)도 보인다.

특이한 구결자로 '夭'(요)가 있다. 이 책에서도 딱 한 번 사용되었다.

(11) 解脫 世間ᄋᆞㅣ 貪欲諸漏ㅅ夭ㅣ <5:14a9>

대구본, 일사본 등에는 'ㅅㅣ'로 되어 있다. '호-/ᄒᆞ요-'의 교체가 15세기뿐 아니라 고려시대에도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ᄒᆞ요디'가 대구본에서 'ㅅ而ㅁ'로 표기된 적은 있으나 '夭'는 이 책에만 보이는 것이다.

다음으로 특기할 만한 것은 'ㄴ'이다. 이 글자는 대격조사 '-(으)ㄹ'이나 관형사형어미 '-ㄹ'을 표기할 때 흔히 쓰이지만 이 책에서는 회상법 선어말어미 '-ᄃᆞ/드-'의 계사 뒤 교체형 '-ᄅᆞ/르-'를 표기하는 데에도 사용되었다.

(12) ㄱ. 皆是無漏大阿羅漢ㅅᆞᄒᆞ … 應身無量ᄋᆞᄉᆞ 度脫衆生ᄋᆞᄀᆞᄉᆞ 拔濟未來ᄋᆞᄉᆞ 越諸塵累ㅅᆞᄂᆞᆫᄀᆞㅣ <1:5b5>

ㄴ. 皆是無漏大阿羅漢이러니 … 應身無量ᄒᆞ야 度脫衆生ᄒᆞ며 拔濟未來ᄒᆞ야 越諸塵累ᄒᆞᄂᆞ니러니 <간경1:24a3>

(13) ㄱ. 其名曰 大智舍利弗 摩訶目犍連 … 須菩提 優波尼沙陀 等 而爲上首ㅅᆞᄂᆞᆫᄀᆞㅣ <1:6a7>

ㄴ. 其名曰 大智舍利弗와 摩訶目犍連과 … 須菩提와 優波尼沙陀等이 而爲上首ᄒᆞ며 <간경1:26b9>

(14) ㄱ. 恒沙菩薩ㅅᆞ 來聚道場ᄋᆞᅀᆞᄉᆞᄀᆞᄒᆞ 文殊師利ㅅᆞ 而爲上首ㅅᆞᄂᆞᆫᄀᆞㅣ <1:7a2>

ㄴ. 恒沙菩薩이 來聚道場ᄒᆞ시니 文殊師利 而爲上首ㅣ러시다 <간경1:30a9>

(15) ㄱ. 發意ㄱ 圓成 一切衆生ㅋᆞ 無量功德ㅅᆞᄂᆞᆫᄀᆞㅣ <1:7b1>

ㄴ. 發意ᄂᆞᆫ 圓成 一切衆生의 無量功德ᄒᆞ더니 <간경1:32a3>

(16) ㄱ. 我於往劫ᄋᆞ 在此界中ᄋᆞᄂᆞᆫᄐᆞᄏᆞ 有佛出世ᄋᆞᄀᆞᄉᆞᄒᆞ 名日月燈ㅅᆞᄂᆞᆫᄀᆞᄉᆞᄒᆞ <5:9b 12>

ㄴ. 我於往劫에 在此界中ᄒᆞᆫ제 有佛이 出世ᄒᆞ시니 名이 日月燈이러시니 <간경5:40b1>

그런데, 언해본의 '이러시니'에 대응하는 구결토로 'ㅅᆞ、ᄀᆞᄉᆞᄒᆞ'도 나타난다.

(17) ㄱ. 有佛出世ᄋᆞᄀᆞᄉᆞᄒᆞ 名爲水天ㅅᆞ、ᄀᆞᄉᆞᄒᆞ <5:16a13>

ㄴ. 有佛이 出世ᄒᆞ시니 名爲水天이러시니 <간경5:70b1>

(18) ㄱ. 有佛出世ᄋᆞᄀᆞᄉᆞᄒᆞ 名無量聲ㅅᆞ、ᄀᆞᄉᆞᄒᆞ <5:17a13>

ㄴ. 有佛이 出世ᄒᆞ시니 名이 無量聲이러시니 <간경5:75a2>

(19) ㄱ. 有佛出世ᄋᆞᄀᆞᄉᆞᄒᆞ 名日月燈明ㅅᆞ、ᄀᆞᄉᆞᄒᆞ <5:18b7>

ㄴ. 有佛이 出世ᄒᆞ시니 名이 日月燈明이러시니 <간경5:80b6>

(20) ㄱ. 有佛出世ᄉᆞᆫᄃᆡ 名無量光ᄂᆞᆞᆫᄃᆡ <5:19a13>
ㄴ. 有佛이 出世ᄒᆞ시니 名이 無量光이러시니 <간경5:84a7>

대구본에서도 위의 (16)에 해당하는 부분이 'ㅣᄉᆞᆫᄃᆡ'로 되어 있다. '-ᄅᆞ/르-'를 표기하기에 꼭 알맞은 글자가 없어서 'ㄴ'로도 표기해 보고 'ㆍ'로도 표기해 보고 했던 게 아닌가 싶다.

다음으로 구결자 '令'가 주목된다.

(21) 佛勅文殊ᄉᆞᆫ 分領菩薩及阿羅漢ᄉᆞᄋᆞᆯ 應諸齋主令ᄒᆞᆫᄃᆡ <1:7a10>
(22) 勅文殊師利ᄉᆞᆫ 將呪往護令ᄃᆞᆫᄀᆞ大 <1:8b8>
(23) 前第二義門ᄋᆞᆯ 令審業本令ᄉᆞᆫᄀᆞ 文 云ᄂᆞᆷ <5:1a11>
(24) 佛愍我愚ᄉᆞᆫ 敎我安居ᄉᆞᄋᆞᆯ 調出入息令ᄒᆞᆫᄃᆡ <5:10b9>
(25) 佛爲遮謗ᄉᆞᆫ 賜之數珠ᄉᆞᆫ 令常念佛令ᄒᆞᆫᄃᆡ <5:11a9>
(26) 敎我편觀百骸四支ᄋᆞᆫᄃᆞ 諸冷暖氣令ᄂᆞᆞᆫᄒᆞ <5:15a7>
(27) 敎諸菩薩ᄉᆞᆫ 修習水精ᄉᆞᆫ 入三摩地令ᄉᆞᆫᄃᆡ <5:16a13>

대구본에도 '令'가 많이 보이는데 남풍현(1990)에서는 이것을 '게'로 읽었다. 그러나, 위의 예들에서 보듯이 '令'는 '-케 ᄒᆞ-'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게'라고 보기는 어렵다. '令' 뒤에 선어말어미가 오기 때문이다. 후대 이두의 독법에 기대어 '시기-'로 읽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降伏시키-'와 같이 한자어 어근 뒤에 '시키-'가 붙는 일은 상당히 후대에 가서야 생긴 것이고, 중세국어에서는 한자어 어근 뒤에 '시기-'가 붙는 일이 없었다. 이런 경우 중세국어에서는 한자어 어근 뒤에 'ᄒᆡ-'를 붙인다. 본고에서는 '令'를 사동사 'ᄒᆡ-'로 읽고자 한다. 안동본에서 위의 (23)에 대당되는 부분이 'ᄉᆞᆫ已令ᄀᆞ'으로 되어 있고 일사본에서 (27)에 대당되는 부분이 'ᄉᆞᆫᄂᆞᆞᆫᄃᆡ'로 되어 있는 것도 본고의 주장을 뒷받침해 준다.

명령형어미로 'ᄒᆞᆞᄉᆞ'가 보인다.

(28) 則知ᄒᆞᆞᄉᆞ 汝身ᄂᆞ 與諸如來淸淨法身ᄋᆞᄉᆞ 比類發明ᄀᆞᆞᆫ大ᄀᆞ 如來之身ᄀᆞ 名正

徧知ᄒᆞ 汝等之身ㄱ 號性顚倒ᄂᆞᄒᆞ <2:28b12>

(29) 則知ᄒᆞᄉᆞ 汝心 本妙明淨ᄀᆞᆫ 汝自迷悶ᄂᆞᆫ 喪本受輪ᄂᆞᆫ 於生死中ᄂᆞᆫ 常被漂溺ᄂᆞᄒᆞᄂᆞ <2:32b3>

안동본과 대구본의 경우 (28)에 대응되는 부분에는 'ᄒᆞᄉᆞ'로 되어 있어 가람본과 일치하고 있고 (29)와 대응되는 부분에는 'ᄂᆞᄒᆞᄉᆞ'로 되어 있다. 기림사본은 두 곳 모두 'ᄂᆞᄒᆞᄉᆞ'로 되어 있고 송성문본도 두 곳 다 'ᄂᆞㅐᄂᆞ'로 되어 있다. 'ᄂᆞᄒᆞᄉᆞ'는 'ᄒᆞ-오-ㄹ 이(형식명사)-이(계사)-다'로 분석되는 것으로서 '홇디니라'(ᄒᆞ-오-ㅭ ᄃᆞ-이-니라)와 내적 구성에 있어서나 표현 가치에 있어서나 거의 대등하다. 당위 표현이라 할 수 있는데 언표내적 효력은 명령형어미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28), (29)에서 명령형어미 '-라' 앞에 선어말어미 '-거-'가 오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여기서 '-거-'가 아닌 'ᄒᆞ'가 쓰인 것은 흔히 볼 수 없는 것이다.

'ㄴ'으로 끝나는 명사 뒤에 '-이니'나 '-이'가 붙을 때 명사 말음 'ㄴ'이 구결에 반영되어 'ㅌㅣ', 'ㅌ'로 표기되기도 하였다. 이런 'ㄴ'의 말음첨기는 남풍현(1990), 이승재(1993)에서 지적된 대로 안동본에도 나타나는 것이다.

(30) 流變三疊ᄂᆞᆫ 一十百千ㅌㅣㅌ <4:49a5>

(31) 知見無見ᄂᆞᄋᆞ 斯卽涅槃ㅌㅣㅌ <5:2a13>

(32) 眞與非眞ㅌ 尙猶雙非ᄒᆞᄀᆞ 見與所見ᄂᆞ 云何復存ᄂᆞᄒᆞᄒᆞ <5:3a6>

(33) 故又思而進之ᄂᆞᆫ 至於身ㅌㅣㅌ <5:11b12>

'如'字를 중심으로 한 비유 구문은 '…ᄂᆞㄱㅗ …ㅗㅌᄂᆞᆫ-'로 표현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지만 '-ㄱㅣᄂᆞᆫ-'로 표현되기도 한다.

(34) 本是妙明無上菩提淨圓眞心ᄂᆞ 妄爲色空ㅏ 及與聞見ᄂᆞㄱㅗ 如 第二月ᄂᆞ 誰爲是月ᄂᆞᆨ 又誰非月ᄂᆞㄱㅣᄂᆞᆫㅌㅣ <2:39a9>

(35) 幻無自性ᄂᆞᆫ 依眞而立ᄂᆞㄱㅗ 如 華ᄂᆞ 起空ᄂᆞᆫ 全體卽空ᄂᆞᆨ 如 泡生水ᄂᆞᆫ 全體卽水ᄂᆞㄱㅣᄂᆞᆫㅌㅣ <2:50a7>

(36) 反觀父母所生之身ㅅ 猶彼十方虛空之中ㅇ 吹一微塵若存若亡ᄋᆞᄉᆞᄀᆡ ᄋᆞᄉᆞ <3:25a8>

여기서 '-ㄱㅣᄋᆞ-'는 '-ㄴ(동명사어미) + 다(형식명사) + ᄒᆞ-'로 분석된다. '다ᄒᆞ-(如)'는 15세기 언해 문헌에 단 두 번 나타난다.

(37) ㄱ. 됴타 됴타 네 말 다ᄒᆞ니라 <월석12:35a>
ㄴ. 됴타 됴타 네 닐옴 ᄀᆞᆮᄒᆞ니라 (善哉善哉라 如汝所言ᄒᆞ니라) <법화2:80a>

(38) ㄱ. 올타 올타 네 닐옴 다ᄒᆞ니라 <석상21:45a>
ㄴ. 이 ᄀᆞᆮᄒᆞ며 이 ᄀᆞᆮᄒᆞ야 네 말 ᄀᆞᆮᄒᆞ니라 (如是如是ᄒᆞ야 如汝所言ᄒᆞ니라) <법화7:146b>

그런데, 같은 형식의 비유 구문인데도 '-ㄱㅣᄋᆞ-'가 아니라 '-ㄱㅅᄋᆞ-'로 표현되기도 하였다.

(39) 見十方空ᄋᆞᄉᆞᆷ 如手中葉ᄂᆞᄀᆞᅀᆞᄋᆞᅀᆞᄉᆞᄒᆡ <3:25b2>

또한 '-ㄱㅣ'가 뒤에 'ᄋᆞ-'를 갖지 않고 나타나는 일도 있다. 이는 'ㅣᄋᆞ-'가 단일어간인 것이 아니라 'ㅣ'가 명사임을 말해 준다.

(40) ㄱ. 若復此聲ᄂᆞ 來於耳邊ㄱᆞᆺ 如 我ᄉᆞᄅᆞ 乞食室羅筏城ᄋᆞᄂᆡᄉᆞᄂᆡ 在祇陀林ᄋᆞᄋᆞᄀᆞ 則無有我ㅅᄀᆞㅣ <3:5b10>
ㄴ. 若復此聲이 來於耳邊인댄 如 我ㅣ 乞食室羅筏城ᄒᆞᆯ제 在祇陀林ᄒᆞ얀 則無有我ᄐᆞᆺᄒᆞ야 <간경3:21b3>

(41) ㄱ. 若復汝耳ᄂᆞ 往彼聲邊ㄱᆞᆺ 如 我ᄂᆞ 歸住祇陀林中ㅅᄀᆞᅀᆞᄉᆞ 在室羅城 則無有我ㅅᄀᆞㅣ <3:6a2>
ㄴ. 若復汝耳ㅣ 往彼聲邊인댄 如 我ㅣ 歸住祇陀林中ᄒᆞ야ᄃᆞᆫ 在室羅城ᄒᆞ얀 則無有我ᄐᆞᆺᄒᆞ야 <간경3:22a9>

'火ㄷ'은 언해문의 강세첨사 '-곳/옷'과 대응되는 곳에 쓰이는데 15세기 언해 문헌에 '-봇'도 나타난다.

(42) 唯意火ㄷ 能返緣五根ᄒᆞ 所緣不及之地ᄂᆞᆫ <3:4b3>
(43) ㄱ. 唯湛圓眞體火ㄷ 終無滅壞ᄂᆞᆫ <4:45b12>
ㄴ. 唯湛圓眞體옷 終無滅壞ᄒᆞ니 <간경4:81a2>

이와 아울러 언해문의 익심형어미 '-디옷'에 대응되는 곳에 'ㅿㄷ火'가 나타난다. 다른 문헌에 'ㅿ火ㄷ'으로도 나타나고 언해문의 '-디옷'과 대응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ㅿㄷ火'는 오자일 가능성이 있다. 위의 강세첨사와의 관련성을 고려해 볼 만하다.

(44) ㄱ. 旣悟無二ㅿㄷ火 益顯妄淪ᄂᆞᆯ <4:40a10>
ㄴ. 旣悟無二ᄒᆞ디옷 益顯妄淪ᄒᆞ야 <간경4:56b3>

언해문의 '-디위'에 대응하는 '-ㅿᄒᆞ'가 주목된다. 그러나, 이는 좌측에 기입되어 있어 후대의 구결토로 추정된다.

(45) ㄱ. 觸聲塵而已ㅅ(ㅿᄒᆞ) 非耳識也ㆍ <3:10a6>
ㄴ. 觸聲塵而已디위 非耳識也ㅣ니 <간경3:40a5>

명사구가 나열된 뒤 마지막 명사구 뒤에 'ᄂᆞᆫ'이 사용된다. 이것은 석독구결의 'ᄂᆞᄆᆞᆫ', 'ᄂᆞᄉᆞᆫ', 'ᄂᆞᆫ'과 비슷한 용법이어서 주목된다.

(46) 汝但不循 動靜ㅏ 合離ㅏ 恬變ㅏ 通塞ㅏ 生滅ㅏ 明暗ᄂᆞᆫ 如是十二諸有爲相ᄂᆞᄆᆞ <4:53b3>
(47) 世尊 如果位中ᄋᆞ 菩提ㅏ 涅槃ㅏ 眞如 佛性 菴摩羅識 空如來藏 大圓鏡智ᄂᆞᆫ 是七種名ㄱ <4:54b8>

'云何'나 '豈'로 시작되는 수사의문문 앞에는 '-ㅿㅣ/ㅚㅣ', '-ㅁㄱ/ᄒᆞㄱ'이 오는 것이 보통이다. 이는 언해 문헌의 '-거니/어니', '-곤/온'에 대응되는 것이다. 그런데, 같은 구문에 '-ㄴᆞㄱ'도 나타난다.

(48) 知見無見ᄋᆞᄅᆞ 斯卽涅槃ㅣㅣ 無漏眞淨ㄴᆞㄱ 云何是中ᄋᆞ 更用他物ㄴᆞᄒᆞᄒᆞ <5:2a13>
(49) 旣曰眞淨ㄴᆞㄱ 豈容立知ㄴᆞᄒᆞ <5:2b6>

15세기 언해 문헌의 '-관ᄃᆡ/완ᄃᆡ'에 대응되는 구결토로 '-ᄒᆞㄱᄎᆞ'가 나타난다. 기림사본에서는 '-ㄴᆞㅁᄎᆞ'로 표기된 바 있다.

(50) ㄱ. 此諸物象ㅏ 與此見精ㅏㄱ 元是何物ᄒᆞㄱᄎᆞ 於其中間ᄋᆞ 無是非是ㅿㅣ ㄴᆞㅣㅁㅁ <2:38a13>
ㄴ. 此諸物象과 與此見精이 元是何物이완ᄃᆡ 於其中間애 無是와 非是와 ᄒᆞ니잇고 <간경2:56a4>

다음의 'ㅅ(ㄱ)ㄴ'이나 'ㅅㅂ'은 15세기 언해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는 형태이다. 모두 주어가 1인칭임이 주목된다.

(51) ㄱ. 我問汝聞ㅅㄱㄴ 汝則言聞ᄉᆞㅁ 又問汝聲ㅅㄱㄴ 汝則言聲ᄒᆞᄋᆞ <4:56a11>
ㄴ. 我問汝聞커든 汝則言聞ᄒᆞ고 又問汝聲커든 汝則言聲ᄒᆞ야 <간경4:127a9>
(52) ㄱ. 佛問比丘ᄋᆞㅋㅣ 我初稱解ㅅㅂ 如來印我ᄋᆞᄉᆞ 名阿若多ᄒᆞᄋᆞㅂㅣ <5:8a5>
ㄴ. 佛이 問比丘ᄒᆞ야시ᄂᆞᆯ 我ㅣ 初애 稱解ᄒᆞ야ᄂᆞᆯ 如來ㅣ 印我ᄒᆞ샤ᄃᆡ 名이 阿若多ㅣ라ᄒᆞ시니 <간경5:32b3>
(53) ㄱ. 我初綰巾ㅅㄴ 汝名爲結ᄒᆞㅿㅋㅣ <5:5a8>
ㄴ. 我ㅣ 初애 綰巾ᄒᆞ야ᄂᆞᆯ 汝ㅣ 名爲結ᄒᆞ니 <간경5:19b2>
(54) ㄱ. 成阿羅漢ᄋᆞᄋᆞ 住佛座下ㅅㄴ 印成無學ㅅㅂ <5:10b11>

ㄴ. 成阿羅漢ᄒᆞ야 住佛座下ㅣ어늘 印成無學ᄒᆞ시니 <간경5:44a9>

악학궤범 '動動'에 나오는 '德이여 福이라 호놀 나ᅀᅡ라 오소이다'의 '호놀'과 관련지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ㄴ/ㄹ'이 동명사어미로 사용된 예들도 꽤 눈에 띈다.

(55) ㄱ. 汝稱覺明ᄀᆡ 爲復性明ᄋᆞᆫᄃᆞᆫ 稱名爲覺ᄒᆞ 爲覺不明ᄋᆞᆫᄃᆞᆫ 稱爲明覺ᄒᆞ <4:30a5>

ㄴ. 汝稱覺明은 爲復性明을 稱名爲覺가 爲覺不明ᄋᆞᆯ 稱爲明覺가 <간경4:10a8>

(56) ㄱ. 及爲當來ᄋᆞᆫᄃᆞ 佛滅度後ᄋᆞᆫ 末法衆生ᄂᆞᆫ 發菩提心ᄋᆞᆫᄃᆞᆫᄋᆞᄉᆞ <4:45a10>

ㄴ. 及爲當來佛滅度後엣 末法衆生이 發菩提心ᄒᆞ릴ᄒᆞ샤 <간경4:78b7>

(57) ㄱ. 凡具大根ᄋᆞᆫ 修菩薩行ᄋᆞᆫᄃᆞᄉᆞᆫᄀᆡ 皆名普賢之行ㆍᄋᆞᆫᄃᆞᄒᆡㆍ <5:13a6>

ㄴ. 凡具大根ᄒᆞ야 修菩薩行ᄒᆞᄂᆞ니ᄅᆞᆯ 皆名普賢之行이라 <간경5:55a5>

다음으로 '-ㅁㄹ'가 보이는데 역접의 '-나'와 대응되는 것이다.

(58) ㄱ. 雖知見精無環ㅁㄹ 而現與物雜ᄋᆞᆫᄃᆞ 未能甄辨ᄒᆞᄂᆡ <2:32b7>

ㄴ. 雖知 見精의 無環ᄒᆞ나 而現與物와 雜ᄒᆞᆯᄉᆡ 未能甄辯ᄒᆞ니라 <간경2:31b3>

'-ㅁㄹ'는 기림사본(3:43a6)에도 나오는데 이것은 수사의문문 앞의 '-거니/곤'과 대응되는 것이어서 가람본의 것과 기능에 차이가 있다.

'ᄋᆞᅀᅡᄉᆞᆫᄀᆞᄒᆡ'(1:7a2, 11)가 보이는데 15세기에는 같이 쓰일 수 없었던 확인법 선어말어미와 회상법 선어말어미가 共起하고 있어 흥미롭다.

4. 가람본 권6-10의 구결

가람본 권6-10이 가람본 권1-5와 한 책으로 묶여 있기는 하나 서로 다른

책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하였다. 기입된 구결도 권1-5와 권6-10이 상당히 다르므로 구결 자료로서 다룰 때에도 이 둘을 분리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우선 기입된 구결의 필체가 다르고 구결이 기입되는 위치도 특이하다. 해당 語句의 마지막 글자 오른쪽 아래에 기입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글자 바로 오른쪽, 또는 오른쪽 어깨에 기입된다. 따라서, 가람본 권1-5와는 다른 사람에 의해 기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구결자의 運用 양상에서 권1-5와 두드러지게 다른 점은 '시'가 'ᄉᆞ'로 표기되고 '샤'가 'ᅀᅡ'로 표기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ᄉᆞ'는 '시'와 '이'를 표기하는 이중적 기능을 갖게 된다. 그리고, 'ᄒᆞ며'가 'ᄂᆞᄉᆞ'로 표기되는 경우가 많다. '-며'의 구결자로 많이 쓰이는 'ᄀᆞ', 'ᄀᆞᆺ'에서 字形이 더욱 단순화된 것이다. 'ᄒᆞ샤'는 'ᄂᆞᅀᅡ'로 표기되므로 'ᄒᆞ며'와 혼동될 우려는 없다. '어'는 항상 'ᄋᆞ'로 표기되는데 'ᄂᆞᄒᆞᄉᆞᄒᆞᄐᆞ'(9:15b4)에서 꼭 한 번 'ᄉᆞ'로 표기되었다.

구결토에 나타난 언어 사실은 가람본 권1-5나 기림사본과 비슷한 것 같다. 구결토의 사용 양상이 비교적 획일적이어서 가람본 권1-5만큼 다양하고 풍부한 양상을 보여주지는 못하나, 고려시대 구결에 특징적인 것들, 그리고 15세기 언해 자료에서는 보기 힘든 형태들이 꽤 많이 보인다. 'ㅁㅌ'(8:52a7, 8:54b11, 9:8a2), 'ㅁᄒᆞ'(8:26a3, 8:27a5, 9:10b5, 6), 처격의 'ᄒᆞ'(6:21b10, 6:23a6, 6:31b13, 9:3b3, 9:24b4, 10:7a2), 'ᄂᆞᄂᆞᅀᅡᄀᆡ'(6:27a13, 6:31b12, 8:38b4, 8:39b4, 8:43b4), 'ᄂᆞᄌᆞᅀᅡᄀᆡ'(6:26a7, 9:12b11), 'ᄀᆞᅀᅡᄀᆡ'(6:28a11, 9:10b1), 'ᄂᆞᄂᆞᄂᆞᄒᆞ'(7:2b6, 7:15a12, 7:20a11, 8:26b5, 8:27a7, 8:28a5, 8:31a5, 8:34b4, 8:37a5, 10, 8:37b4, 8:39b1, 3, 8:55b9, 9:8b12), 'ᄂᆞᄀᆞᄂᆞᄒᆞ'(9:13a8), 'ᄂᆞᄉᆞᄌᆞ'(7:16a10) 등이 눈에 띈다. 주제첨사는 보통 'ᄀᆞ'으로 표기되지만 'ㅌᄀᆞ'(6:34b13, 6:38a5, 9:5b1)으로 표기되기도 하였다. 'ᄂᆞㅌᄒᆞ(ㆍ)'에서 'ᄂᆞ'가 생략되고 'ㅌᄒᆞ(ㆍ)'(6:23a7, 6:25a6, 6:26b4, 8:51a12, 9:1a11)로만 나타나는 것은 다른 문헌에서는 보기 힘든 것이다. '-건마ᄅᆞᆫ/언마ᄅᆞᆫ'은 다른 문헌에서는 대개 'ᄀᆞᄀᆞᄀᆞᄀᆞ/ᄋᆞᄀᆞᄀᆞᄀᆞ'으로 표기되는데 이 책에서는 'ㄹ'까지 표기에 반영하여 'ᄀᆞᄀᆞᄀᆞᄂᆞᄀᆞ/ᄋᆞᄀᆞᄀᆞᄂᆞᄀᆞ'(6:41b12, 7:2a1, 7:20b4, 8:51b3, 9:10b10)으로 표기되는 경향이 있다. 처격의 'ᄌᆞ'와 소위 대

제격의 'ㅅㄱ'이 결합된 'ᄀᆞᅀㄱ'(7:5b11, 12, 7:6a1, 6, 8, 9)이 나타난다. 대제격 혼자 쓰일 때에는 대개 'ㄴᆞㄱ'(7:3b2), 'ㄴᅀㄱ'(8:39a12)으로 표기된다. 'ᄂᆞᅀㄱ大', 'ᄂᆞㄱᅩ十', 'ᄂᆞㄴᅩ上十' 뒤에 주제첨사 '-ㄱ'이 부가된 형태인 'ᄂᆞᅀㄱ大ㄱ'(6:32b9), 'ᄂᆞㄱᅩ十ㄱ'(9:13a2, 9:13b12, 9:15a8, 9:15b2, 9:16b3, 10:11b4, 5, 11, 10:21b12), 'ᄂᆞㄴᅩ上十ㄱ'(9:14a13, 9:17a13) 등도 나타난다.

특이한 구결자로 '時'가 보인다. 시간을 나타내는 형식형사 '제'를 표기한 것이 아닌가 한다.

(59) ㄱ. 定力ㄴ 未成ᄂᆞㄱ 時 不能動魔ᄉᆞᄒᆞᄐᆞ 硏究精極ᄂᆞᄀᆞᆞ 乃漸發魔事也ᄉᆞᄒᆡ <9:15b7>
ㄴ. 定力이 未成ᄒᆞ야션 不能動魔ᄒᆞ다가 硏究精極ᄒᆞ야사 乃漸發魔事也ᄒᆞᄂᆞ니 <간경9:64a9>

수사의문문 앞에 나오는 'ᄒᆞ리온'이 'ᄂᆞᄒᆞᄐᆞㄱ'으로 표기된 예가 있어 흥미롭다. 'ᄐᆞ'字는 구결자로서는 매우 드문 字이다.

(60) 識陰ㄴ 若盡ᄂᆞᄀᆞ 我命ㄲ 亦盡ᄂᆞᄒᆞᄐᆞㄱ 誰證眞常ᄂᆞᄒᆞᄐᆞᄂᆞᄀᆞ <10:15b6>

고려시대 구결에서 'ᄃᆞ'는 대개 2인칭 의문문에 쓰이고 감탄문에는 'ㅅᆞᅩ/ㅎᆞᅩ'가 쓰이지만 'ᄃᆞ'가 감탄문에 쓰이는 일도 있다.

(61) 安立道場ᄂᆞᄀᆞ 救護 衆生ㄴ 末劫ᄀᆞ 沈溺ᄂᆞᄋᆞᄀᆞᄃᆞ <6:39b9>
(62) 披其解ㄱ 則見其經ㅁ 文理昭然 如 指諸掌 惜乎未及流通ᄂᆞᄀᆞ 而禪師ㄴ 委蛻ᄂᆞᄉᆞᄀᆞᄃᆞ <10:23a10>

같은 감탄문에 'ㄷ'(더)가 쓰이기도 한다.

(63) ㄱ. 快哉ᄉᆞ 此問ᄉᆞ 令諸衆生… 不入邪見ᄉᆞᄂᆞᄋᆞᄀᆞㄷ <8:41b6>

ㄴ. 快哉라 此問이여 令諸衆生ᄋᆞ로 不入邪見케ᄒᆞᄂᆞ니 <간경8:67b5>

'-ㄴ/ㄹ'이 동명사어미로 사용된 경우가 많이 눈에 띈다.

(64) ㄱ. 阿顚迦云無善心・ᄉᆞᄋᆞᆫ 內業有十ᄉᆞᆫ 而壞滅法身ᄉᆞᄂᆞᆫ 唯婬怒癡ᄂᆞᆫ 爲甚ᄉᆞᆫ 故擧三以兼餘ᄉᆞᄋᆞᄉᆞᆫ <6:27b10>
ㄴ. 阿顚迦ᄂᆞᆫ 云無善心이라 內業이 有十호ᄃᆡ 而壞滅法身호ᄆᆞᆫ 唯婬怒癡ᄂᆞᆫ 爲甚ᄒᆞᆯ식 故로 擧三ᄒᆞ샤 以兼餘ᄒᆞ시니라 <간경6:31a8>

(65) 能令 衆生ᄂᆞᆫ 持 我ᄅᆞᆯ 名號ᄉᆞᆫᄐᆞ 與彼共持六十二恒河沙諸法王子ᄉᆞᆫᄃᆞᆫ 二人福德ᄂᆞᆫ 正等無異ᄒᆞᆫᄃᆞᆫᄂᆞᆫ <6:28b4>

(66) 令 持我名ᄉᆞᄂᆞᆫ 福等於彼ᄒᆞᆫᄉᆞᆫ <6:28b7>

(67) 求妻ᄉᆞᄂᆞᆫ 得妻ᄉᆞᄉᆞ 求子ᄉᆞᄂᆞᆫ 得子ᄉᆞᄉᆞ <6:30b6>

(68) 如何不明徹ᄉᆞᄂᆞᆫ 於是獲圓通ᄉᆞᆫᄐᆞ <6:33a5>

(69) ㄱ. 若末世人ᄂᆞᆫ 願立道場ᄀᆞᄒᆞᆫᄀᆞ 先取 雪山ᄋᆞᄂᆞᆫ 大力白牛ᄂᆞᆫ 食 其山中ᄋᆞᄂᆞᆫ 肥膩香草ᄉᆞᄂᆞᄂᆞᆫᄐᆞᄂᆞᆫ <7:2b10>
ㄴ. 若末世人이 願立道場인댄 先取 雪山앳 大力白牛ㅣ 食 其山中앳 肥膩香草ᄒᆞ니ᄅᆞᆯ호리니 <간경7:8b1>

(70) 自 我ᄂᆞᆫ 出家ᄉᆞᄂᆞᄉᆞᆫ 恃 佛ᄂᆞᆫ 憍愛ᄉᆞᄋᆞ <7:6b9>

(71) 無世閒心ㅁ 同世行事ᄉᆞᄋᆞ 於行事交ᄋᆞ 了然超越ᄉᆞᄂᆞᄀᆞ 命終之後ᄋᆞ 徧能出超化無化境ᄉᆞᆫᄂᆞᆫ <8:57b10>

(72) 生勝解者ᄀᆞ 是人ᄀᆞ 則墮能非能執ᄉᆞᄋᆞ 摩醯首羅ᄂᆞᆫ 現無邊身ᄉᆞᄂᆞᄉᆞᆫ 成其伴侶ᄉᆞᄋᆞ 迷佛菩提ㅁ 亡失知見ᄉᆞᆫᄐᆞ <10:12b13>

(73) 是人ᄀᆞ 則墮生無生執ᄉᆞᄋᆞ 諸迦葉波ᄐᆞ 幷波羅門勤心投身ᄉᆞᄋᆞ 事火崇水ᄉᆞᄋᆞ 求出生死ᄉᆞᄂᆞᄉᆞᆫ 成其伴侶ᄉᆞᄋᆞ 迷佛菩提ㅁ 亡失知見ᄉᆞᆫᄐᆞ <10:14a11>

'ㄴ'의 말음첨기도 보인다.

(74) 自在遊行ᄉᆞᆫᄀᆞᆫ大 名自在天ᄂᆞᆫᄂᆞᆫ <6:23b9>

'況'으로 시작하는 수사의문문 앞에 'ᄒᆞᆫᄂᆞᆫ/ᄒᆞᆫᄂᆞᆫ', 'ㅁᄀᆞ/ᄒᆞᄀᆞ' 외에 'ㅁᄀᆞᆷ'

가 나타난다.

(75) 滅滅空本無ㅁㅏ 況復諸三有ㄴㅣㅅ <6:32b8>

비유 구문에 'ㅣ'가 보인다.

(76) 此中道果覺ㄴ 將證未證ㅅㅓㄱㅁ 故如 忍事人非懷非出ㅣㅿㄴㅣ <8:35b12>

(77) ㄱ. 阿難 此不還天ㄱ 彼諸四禪四位天王ㅅ 獨有欽聞ㅁ 不能知見ㅅㅂㄴ 如 今世閒曠野深山聖道場地ㅇ 皆阿羅漢ㄴ 所住持ㅅ숀 故ㅷ 世閒麤人ㅋ 所不能見ㅅㄱㅣㅅㄴ. <9:6a2>

ㄴ. 阿難아 此不還天은 彼諸四禪四位天王이 獨有欽聞ᄒᆞ고 不能知見ᄒᆞᄂᆞ니 如 今世閒曠野深山聖道場地ㅣ 皆阿羅漢所住持故로 世間麤人의 所不能見ᄫᅳᆺᄒᆞ니라 <간경9:22a7>

익심형어미 '-디옷'에 해당하는 '-ㅿㄴ火'가 보이는데 안동본과 대구본의 해당 부분에는 '-ㅿ火ㄴ'으로 되어 있다.

(78) ㄱ. 金銀ㄱ 百鍊ㅿㄴ火 愈精而不變ㅁ <7:3b7>

ㄴ. 金銀은 一百번 불이디옷 더욱 精ᄒᆞ야 變티 아니ᄒᆞ며 (金銀은 百鍊愈精而不變ᄒᆞ며) <간경7:13a8>

처격조사와 강세첨사의 결합형인 'ㅇ火'도 보인다.

(79) 唯於刀兵ㅇ火 不得自在ㅅᄒᆞㅂ <9:25b13>

명사구의 나열 뒤에 쓰이는 'ㅅㄴ'도 보인다.

(80) 不生 藥叉 羅刹 及富單那 迦吒富單那 鳩槃茶 毗舍遮等ㅅ 幷諸餓鬼 有形 無形 有想 無想ㅅㄴ 如是惡處ㅅᄒᆞㅅ <7:15b2>

'ᄉᆞᅀᅳᆫᄃᆡ'(8:39a5)은 확인법 선어말어미 'ᅀᅳ'와 'ᅀᅳᆫ'가 중첩되어 있어 흥미롭다. 대구본에도 이렇게 'ᅀᅳ/ᄋᆞ'와 'ᅀᅳᆫ'가 중복되게 표기된 예들이 나타난다(이승재 1993:62). 앞서 언급한 'ᄉᆞᅀᅳᄉᆞᆸᄀᆞᆫᄃᆡ'와 함께 고려할 때 'ᅀᅳ'가 15세기의 확인법 선어말어미와는 기능이 사뭇 달랐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음 예의 'ᄉᆞᄋᆞᄉᆡᄆᆞᆫᄃᆡ'는 안동본에도 'ᄉᆞᄋᆞᄉᆡ所ᄃᆡ'로 되어 있어 일치를 보여준다. 'ᄒᆞ-야 잇-더-옷-오-니'(ᄒᆞ얫다소니)로 분석될 수 있다.

(81) ㄱ. 我輩愚鈍ᄉᆞᄋᆞ 好爲多聞ㅁ 於諸漏心ᄋᆞ 未求出離ᄉᆞᄋᆞᄉᆡᄆᆞᆫᄃᆡ 蒙佛慈誨ᄉᆞᄋᆞ <7:19a11>

ㄴ. 我輩愚鈍ᄒᆞ야 好爲多聞ᄒᆞ고 於諸漏心에 未求出離ᄒᆞ다니 蒙佛慈誨ᄒᆞᄉᆞ와 <간경7:66b8>

'ᄉᆞᄋᆞᄉᆞᅀᅳᆫᄃᆡ'(9:27a9)도 보이는데 이는 'ᄒᆞ-야 잇-거ᄂᆞᆯ'로 분석된다. 이 두 예는 '-어 잇-'이 '-엣-'으로 축약된 뒤 활음 'ㅣ'가 탈락되어 '-엇-'으로 되는 과정이 고려시대에 이미 존재했음을 암시한다. 혹은 '-얫-'이라는 음절을 표기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ᄋᆞᄉᆡ-'으로 표기했다고 볼 수도 있다.

다음의 'ᄉᆞᄉᆞᄒᆞᄀᆞᄂᆞ'은 안동본에는 'ᄉᆞᄉᆞᄒᆞᄀᆞᄂᆞᆫᄀᆞ', 대구본에는 'ᄉᆞᄉᆞᄒᆞᄀᆞᄀᆞᄀᆞ'으로 되어 있어 일치를 보여주는데, 그 문법적 구성은 이해하기 어렵다.

(82) ㄱ. 或說ᄂᆞᆷ 每地ᄋᆞ 斷一障二愚ㅁ 修一波羅蜜ᄉᆞᄉᆞᄒᆞᄀᆞᄂᆞ 名相ᄂᆞ 煩紊ᄉᆞᆼᄉᆞᄀᆞ 辭義 迂闊ᄉᆞᄉᆞᄀᆞ大 <8:36a8>

ㄴ. 或說호ᄃᆡ 每地예 斷一障二愚ᄒᆞ고 修一波羅蜜이라 ᄒᆞᄂᆞ니 名相이 煩紊ᄒᆞ며 辭義ㅣ 迂闊ᄒᆞᆯ식 <간경8:44a6>

다음의 'ᄉᆞᄉᆞᆸᄒᆞᄀᆞ'은 대구본에 'ᄉᆞᄉᆞᄒᆞᄀᆞ'으로 되어 있어 일치를 보여주는데 그 구성은 이해하기 어렵다. 조건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 같다.

(83) ㄱ. 於己妻房ᄋᆞ 婬愛ᄂᆞ 微薄ㅁ 於淨居時ᄋᆞ 不得全味ᄉᆞᄉᆞᆸᄒᆞᄀᆞ 命終之後

ᄋᆞ 超日月明ᄉᆞᄋᆞ <8:57a3>

ㄴ. 於己妻房애 婬愛微薄ᄒᆞ야 於淨居時예 不得全味ᄒᆞ나 命終之後에 超日月明ᄒᆞ야 <간경8:135a9>

(84) ㄱ. 我無欲心ᄀᆞᄐᆞᄇᆞ 應汝行事ᄉᆞᄋᆞ 於橫陳時ᄋᆞ 味如噉蠟ᄉᆞᄉᆞᄇᆞᄀᆞ 命終之後ᄋᆞ 生越化地ᄉᆞᄇᆞᄇᆞ <8:57b5>

ㄴ. 我無欲心호ᄃᆡ 應汝行事ᄒᆞ야 於橫陳時예 味如噉蠟ᄒᆞ면 命終之後에 生越化地ᄒᆞᄂᆞ니 <간경8:138a3>

5. 일사본의 구결

일사본의 구결은 가람본이나 기림사본보다는 후대이고 송성문본과 비슷한 시기의 언어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듯하다. 후대의 加筆吐가 많이 섞여 있어서 언어 자료로서 균질적이지는 못하나, 그 중 古形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구결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구결토의 사용에서 가람본과 두드러지게 다른 점은, '-ㄱㅅ(ㄴ) ᄉᆞ-'와 같은 복합토가 많이 사라져서 보문명사 없이 그냥 'ᄉᆞ-'의 활용형만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는 것, 그리고 'ᄉᆞᄂᆞᆫᄀᆞ','ᄉᆞᄀᆞㅅᄀᆞ' 같은 'ᄒᆞ-'와 형식명사의 결합형이 많이 사라져서 그냥 조사 'ᄀᆞ'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이다.

구결자의 사용 양상을 보면 '샤'는 '𠂤'로 표기되지만 '리'가 'ㅣ'로, '어'가 'ㅓ'로 표기되고 '라'가 거의 'ㆍ'로 표기되며 형식명사 'ᄃᆞ'는 'ᄒᆞ'와 'ㅅ' 외에 '月'로도 표기되고 있다. 대체로 14세기말, 15세기초의 경향과 일치한다. 'ᄒᆞ쇼셔'는 주로 'ᄉᆞ小ᄑᆞ'로 표기되는데 'ᄉᆞ小西'도 간혹 보인다. 특이한 구결자로는 '七女'(3:5b12, 4:41a1)의 '女'字, 'ᄉᆞㅣㄴᄆᆞ口'(4:55a13)의 'ᄆᆞ'字, 'ᄉᆞ禾ㅓᄒᆡ'(1:14a4), '禾午'(1:15a7, 2:48a5)의 '禾'字, 'ᄉᆞ也ㄷᆞᄂᆡ'(1:8b8)의 '也'字, 'ᄉᆞ如ㅅ'(1:8b5)의 '如'字, 'ᄉᆞ斗所ㄴㅣ'(1:12b12)의 '所'字, 'ㄴᄐᆞᄀᆞ'(1:14b13)의 '夕'字, 'ᄉᆞ호𠂤加'(1:17b4)의 '加'字, 의문첨사 '加'(1:24b10, 11)字, 'ᄉᆞ斤ᄀᆞ'(1:19a2), 'ᄉᆞ斤ᄒᆡ'(1:19b5, 1:20b5, 1:24a7)의 '斤'字, 'ᄒᆞ다'의 축약형 '타'를 표기한 '他'(2:36a12)字, '言丁'(2:42a11)의 '言'字, 수사의문문 앞의 '-온'을 표기한 '乎'(2:42b13)字, 'ᄂᆞ'(3:8b1)字,

'ㅅㅎ'(5:7b12)의 'ㅎ'字 등을 들 수 있다.

일사본이 비교적 후대의 자료라고 생각되기는 하지만 일부 구결토는 이전 시기의 것을 그대로 물려받고 있는 것도 있다. 강세첨사 '火七(붓)'(4:45b13), 익심형어미 'ㅌ火七(디옷)'(4:40a11), 연결어미 'ㅅㄴ/ㅅㄱㄴ(호놀)'(4:56a11, 12, 5:5a8, 5:8a6, 5:16a2, 5:16b9), 명사구 나열의 'ㅅㄴ'(4:53b3, 4:54b9, 5:14b9), 처격의 '十'(2:37b8, 4:48a4), 'ㅅㄱㅗ十'(3:6a2, 5:20a8), 비유 구문의 'ㅅㅅㅅ-'(3:25a8, 9) 등은 앞의 (43); (44); (51)-(54); (46), (47); (41); (39) 등에서 살펴보았던 가람본의 것과 일치하는 구결토이다. 언해본의 '이러시니', '이러시다'에 대응하는 구결토로 'ㄴㅅㄷㅣ'(1:6a8, 1:7a2, 1:7b2), 'ㄴㆍㄷㅌ'(5:16a13)가 나타나는데 이는 앞서 (17)-(20)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람본, 대구본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 책에 기입된 구결로 가장 특징적인 것은 다른 문헌에서 '大'로 표기되는 것이 이 책에서는 'ㅣ'로 표기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ㄴㅣㄱ'은 다른 문헌의 'ㄴ(ㄱ)大(ㄱ)'에 대응하는 것인데 수없이 많이 나오고 있고, 'ㅈㄱ大(ㄱ)'(3:21b9, 4:47b1, 4:49a6, 11, 4:51b9, 5:5b4)에 대해서 'ㅈㄱㅣ(ㄱ)'(1:3b11, 3:4b10, 3:17b10, 3:25b13, 5:17b10)도 나타난다. 'ㅅㄷㄱ大'에 대해서는 'ㅅㄷㄱㅣㄴ'(5:1b10)로도 표기하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비유 구문에서 주목되는 것은 앞서 (34)-(41)에서 보았듯이 '-ㄱㅣㅅ-' 구성이 나타나고, 형식명사 'ㅣ'가 뒤에 'ㅅ-' 없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이다. 다음의 (87)은 송성문본에도 똑같이 'ㅅㅈㄱㅣ'로 되어 있다.

(85) 世尊下 如 佛說言ㅅㅎㅁ 因地覺心ㅈ 欲求常住ㄱ大 要與果位名目ㅈ 相應ㅅㅎㄱㅣㅅㅋ <4:54b6>

(86) ㄱ. 由汝ㄴ 無始ㅋ 心性 狂亂ㅅㅋ 知見 妄發ㅅㅌ 發妄ㄴ 不息ㅅㅋ 勞見發塵ㅅㅌ 如 勞目睛ㅅㅜ 則有狂華ㅅㅈㅣㅅㅋ <5:6a2>

ㄴ. 由汝ㅣ 無始로 心性이 狂亂ᄒᆞ야 知見이 妄發ᄒᆞ야 發妄 不息ᄒᆞ야 勞見에 發塵호미 如 勞目睛에 則有狂華ᄃᆞᆺᄒᆞ야 <간경5:23a1>

(87) ㄱ. 譬如 有人ㄴ 取頻伽甁ㅅㅋ 塞其兩孔ㅅㅋ 滿中擊空ㅅㅋ 千里遠行ㅅㅋ 用餉他國ㅅㅈㄱㅣ <2:53a11>

ㄴ. 譬如 有人이 取頻伽甁ᄒᆞ야 塞其兩孔ᄒᆞ고 滿中히 擎空ᄒᆞ야 千里예 遠行ᄒᆞ야 用餉他國ᄃᆞᆺᄒᆞ니 <간경2:120a1>

'ㅅㄱㅣ'(3:5b11, 3:6a3)는 가람본의 해당 부분(40, 41)과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

'ㅅ入ᄉᆞᆷ可'(2:38a7), 'ㅅ亦ᄉᆞᆷ可'는 이 책에만 보이는 것은 아니고 고려시대 구결자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인데, 중단형어미 '-다가'의 기원에 대해 알려주는 소중한 구결토이다.

(88) 爾時ㅣ 富樓那彌多羅尼子ㅅ 在大衆中ㅅ入ᄉᆞᆷ可 卽從座起ㅅᄉᆞᆷ <4:28a10>
(89) 思不可樂法ㅅ入ᄉᆞᆷ可 而觸不可樂事ㅅㅣ <5:11b9>

위의 (88)이 'ㅅ入ᄉᆞᆷ可'가 출현하는 전형적인 문맥이다. (89)는 가람본에 'ㅅㅣ可', 간경도감본에 'ᄒᆞ다가'로 되어 있어 '-다가'와 '-入ᄉᆞᆷ可'의 관련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다가'는 본래 회상법 선어말어미 '-ᄃᆞ/드-'와 '-오가'의 결합인 것이다. 15세기 국어에서 '-더-'와 '-오-'가 만나면 '-다-'로 융합되듯이 고려시대에도 '-ᄃᆞ/드-'와 '-오-'가 만나면 '-다-'가 되었을 것이다. 이 어미구조체 '-ᄃᆞ-오가'에 주체존대의 '-시-'가 들어가면 '-ᄃᆞ-시-오가'가 되고 이것은 '-ᄃᆞ샤가'로 실현된다. '-시-'와 '-오-'가 만나면 '-샤-'가 되기 때문이다. 15세기 언해 문헌에서는 '-다가'가 이미 하나의 형태소로 굳어져서 '-시-'가 결합되어도 '-시다가'로 실현된다. 그러나, 구결 자료에 나타나는 '-入ᄉᆞᆷ可/亦ᄉᆞᆷ可'로써 '-다가'가 기원적으로는 단일형태소가 아니라 회상법 선어말어미 '-ᄃᆞ/드-'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ᄃᆞ샤가'의 '-시다가'로의 변화는 '-ᄃᆞ샷-'(-ᄃᆞ-시-옷-)의 '-시닷-'(-시-더-옷-)으로의 변화와 평행되는 것이다.

(90) ㄱ. 이 우리 허므리라 世尊ㅅ 다시 아니ᄅᆞ샤ᄉᆡ이다 <월석12:3b>
ㄴ. 이는 우리 허므리라 世尊ㅅ 다시 아니시다ᄉᆞ이다 <법화2:5b>)

'ᄂᆞᅀᄒᆞᄂᆡ'(1:11b4, 1:21a11, 4:55a13, 5:1a10, 5:7a13), 'ᄂᆞᄉᄒᆞᄂᆡ'(1:15a3, 1:22b10, 4:55b11)는 15세기의 'ᄒᆞ도소이다', '이로소이다'에 대응되는 형태인데 가람본 등에는 주로 'ᄂᆞᅀᄉᆞᄂᆡ', 'ᄂᆞᄉᄉᆞᄂᆡ'로 표기되며 일사본에서도 'ᄂᆞᅀᄉᆞᄂᆡ'(2:39a6, 4:40b4), 'ᄉᄉᆞᄂᆡ'(2:34b6, 2:38b13)로 표기되기도 하였다. 이것은 'ᄒᆞ/이-돗-(ᄋᆞ)이-다'로 분석되는데 'ᄒᆞ도소이다/이로소이다'는 매개모음이 '-돗-'의 원순성에 동화된 결과이다. 'ᄂᆞᅀᄉᆞᄂᆡ/ᄂᆞᄉᄉᆞᄂᆡ'는 원순성 동화가 일어나기 이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ᄂᆞᅀᄒᆞᄂᆡ/ᄂᆞᄉᄒᆞᄂᆡ'는 원순성 동화가 일어난 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ᄂᆞᅀᄒᆞᄂᆡ/ᄂᆞᄉᄒᆞᄂᆡ'가 그만큼 후대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남권희(1994) 高麗末 口訣資料 6種 紹介, 구결연구회 공동연구회 발표 논문.

남풍현(1990) 高麗末·朝鮮初期의 口訣 硏究: 楞嚴經 記入吐의 表記法을 중심으로, 震檀學報 69.

박상국(1983) 海印寺 高麗刻板(국보206호), 月刊 文化財 1983년 2월.

_____(1987) 『全國寺刹所藏木板集』, 文化財管理局.

이승재(1993) 麗末鮮初의 口訣資料, 『國語史 資料와 國語學의 硏究(安秉禧先生 回甲紀念論叢)』, 文學과知性社.

한상화(1994) 祇林寺本 楞嚴經 口訣의 硏究, 聖心女大 碩士學位論文.